

HRI 체어퍼슨노트  
**CHAIRPERSON  
NOTE**

2010. 04. 12 (月)



**경제이슈**

미국의 2월 소비자신용 큰 폭 하락  
한은 기준금리 14개월째 동결

**경영노트**

스티브 잡스의 성공 십계명

**사회트렌드**

불황 신조어

**차이나 리포트**

위안화 환율이 미·중 무역 불균형의 원인이다?

**저널브리프**

웹2.0 구축을 위한 6가지 제언

**洗心錄**

왜 일하는가 - 이나모리 카즈오

이 보고서는 현대그룹 임원들을 위한 경영참고용 자료로서 외부에 공식 배포되는 문서가 아니오니  
무단 복제 및 전제를 금합니다.

□ 미국의 2월 소비자신용 큰 폭 하락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7일)의 발표에 따르면 2월 미국의 소비자신용이 연율 5.6% 하락하며 큰 폭으로 감소
  - 2월 미국의 소비자신용은 전월대비 115억 달러 감소한 2조 4479억 달러를 기록
    - 회전 신용 : 신용카드 구매금액을 포함한 회전 대출은 전월대비 95억 달러 급감하며 연율 13.1% 하락
    - 비회전 신용 : 자동차 구입을 위한 할부 금융과 학생 대출을 포함한 비회전 대출은 전월대비 20억 달러 감소하여 연율 1.6% 하락
  - 고용시장의 회복 지연과 시중 은행들의 신용기준 강화가 소비자 신용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
-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소비심리의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 신용이 상승세로 전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

□ 한은 기준금리 14개월째 동결

- 한국은행은 9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0%로 동결
  -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유럽 재정문제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것이 금리 동결의 주요 배경으로 파악
  -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월 저금리 기조를 밝힌 가운데 유럽중앙은행도 기준금리 11개월째 동결
    - 미국의 경우, 6일 공개된 3월 16일 연방준비제도 회의록에서 실업률이 높고 인플레이션이 낮은 상황에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
    - 또한 8일 열린 유럽 금융통화정책회의에서 유럽중앙은행은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기준금리를 현행 1%로 유지
-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나 고용 시장 위축, 소비 회복세 부진 등 불안 요인이 잠재하여 상반기 중 기준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스티브 잡스의 성공 십계명<sup>1)</sup>

- 애플은 이달 초 아이패드까지 성공적으로 출시하면서 연이은 제품의 성공 요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애플은 아이맥부터 아이북,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까지 출시하는 제품마다 히트 상품으로 만들어왔음
  - 이에 따라 새로운 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애플 및 CEO인 스티브 잡스의 경영 전략은 화제가 되어 왔음
- 애플 제품의 성공 이유는 스티브 잡스의 성공 십계명이 반영된 세 가지 전략(①한 가지에 집중, ②사용자 중심 제품, ③계산된 전략)에 있음

< 애플 제품의 성공과 스티브 잡스의 성공 십계명 >

단 계	내 용
한 가지에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하나의 성공 요인을 활용하라:</b> ‘아이튠즈-아이팟’으로 콘텐츠·하드웨어의 연결을 성공시킨 후 이를 ‘앱스토어-아이폰’에서도 활용</li> <li>• <b>비밀주의로 관심을 높여라:</b> 동시에 여러 모델을 출시하지 않고 비밀주의 전략을 구사하여 소비자가 다음 제품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li> </ul>
사용자 중심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내가 갖고 싶은 제품을 만들어라:</b> 소비자 중심의 유어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소비자가 매장에서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li> <li>• <b>디자인은 단순하게 사용은 쉽게 하라, 기본에 충실하라:</b> 소비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금방 질리지 않도록 제품의 디자인과 매뉴얼을 가능한 단순화</li> <li>• <b>첫 술에 육심내지 마라:</b> 제품 출시의 불완전한 면을 업그레이드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로 완성도를 높여가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자신만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li> </ul>
계산된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이너서클을 활용하라:</b> 제품 출시 직전 IT 전문가들에게 먼저 제품을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사용 기사를 쓰도록 유도</li> <li>• <b>깜짝 쇼를 즐겨라:</b> 비밀주의 전략과 함께 적당한 타이밍에 제품을 노출시키고, 스티브 잡스 자신을 새로운 모습으로 대중에 노출하여 관심을 집중시킴</li> <li>• <b>디지털 생태계를 만들어라, 남의 몫에 손대지 마라:</b> 콘텐츠 수익 대부분을 개발자에게 돌려주어 저렴한 콘텐츠 가격과 개발자의 적극적인 콘텐츠 생산 구조를 구축</li> </ul>

1) 본 자료는 2010. 4. 7 중앙일보 ‘애플 3부작 연타석 히트 비결 있었네’를 요약 정리함

□ 불황 신조어<sup>2)</sup>

■ 나이트쿠스(Nightcus)族 : 밤(night) + 인간(cus)

- 이들은 사람들이 잠자리에 드는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에 활동
- 실업자, 대학생이나 비정규직 직장인 등이 이에 해당
- 밤을 새고 싶어서 새는 것이 아니라 남들 출근하고 생활할 때 할 일이 없어서 빈둥대며 낮잠을 자고, 밤엔 잠이 안 오는 생활 패턴 때문에 낮과 밤이 바뀐 사람들을 뜻함

■ 더피(Duppies)族: 우울한(depressed)+ 도시적인(urban)+ 전문직(professional)

- 대학을 졸업해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고소득을 올리는 도시 전문직 종사자라는 뜻의 ‘여피(yuppies)’에서 앞의 ‘y’만 ‘d’로 바꾼 것
-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원하는 직장을 찾지 못하고 임시직으로 근근이 생활하는 ‘우울한 도시 전문직 종사자’를 말함

■ 시코노믹 또는 치코노믹(Chiconomic)

- ‘시크(chic, 세련된)’와 ‘이코노믹(economic, 경제적인)’의 합성어
- 한정된 예산으로 알뜰하게 멋을 내는 생활습관을 갖춘 사람
- 예를 들어 계절별 옷이나 책이 필요할 때 가급적 집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면서 교통비를 아껴 옷이나 책을 구매
- 인터넷 정보를 수집해 가격할인 혜택을 받는 것도 시코노믹의 트렌드

■ 헝그리 어답터(Hungry adopter)族

- 온라인으로 신상품을 사서 어느 정도 쓰다 중고로 내다 판 뒤 다시 신상품을 구입하는 사람. 즉 ‘온라인 신상족’

■ 시즌리스(seasonless)族

- 패션업계도 불황을 겪으면서 계절에 상관없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패션 아이템을 내놓고 있음
- 늦가을부터 쓸 수 있는 7~8부 소매 코트, 레깅스, 부티(발목까지 오는 신발) 등이 대표적인데, 이런 상품을 즐겨 쓰는 사람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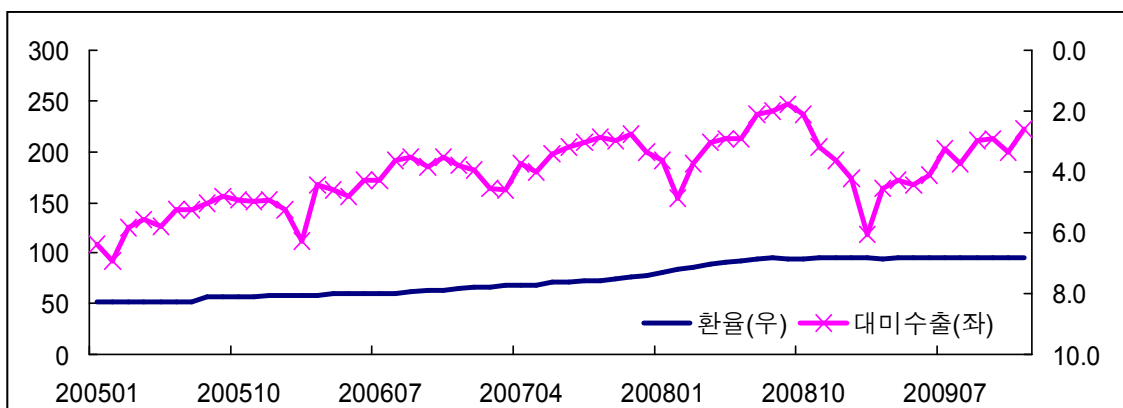
2) “노동시장 신조어”(중앙일보, 2010.4.9) 참조

□ 위안화 환율이 미·중 무역 불균형의 원인이다?

- (개요) 최근 미중간 무역불균형에 대한 미국측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상실
  - 그 동안 미국은 對中 무역적자 확대 원인을 위안화 저평가로 귀결하고 중국에 지속적으로 환율 절상 압박을 가해 옴
  - 반대로 중국은 대미 무역흑자의 원인은 환율이 아니라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와 생산성 향상이라고 주장함
- (반론의 내용) 위안화 환율이 절상되더라도 미중 무역불균형 해소 곤란
  - 무역수지 : 2005년 7월~2008년 7월까지 위안-달러 환율은 21% 절상되었으나 미국의 대중 적자는 660억(2,020억→2680억) 달러 증가함
  - 고용 : 미국의 對中 수입품 중 중간재와 자본재 비중은 50%를 상회하고 이에 대한 중국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37%에 불과함
  - 경제성장 : IMF는 위안화가 20% 절상됨에 따른 미국경제에 대한 견인 효과는 1%p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음
- (전망) 단기간 내에 의미 있는 수준의 위안화 절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4월 4일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향 후 수 주간 지연하기로 함
  - 중국의 무역불균형은 사회보장제도 미비와 투자대안 부재에 따른 것으로 위안화 절상은 중국경제의 여건 변화에 따라 결정될 것임

< 위안화 환율과 중국의 대미수출 추이 >

(단위 : 억 달러, 위안)



자료 : 중국 상무부, 국가외환관리국.

□ 웹2.0 구축을 위한 6가지 제언<sup>3)</sup>

- 웹2.0이란 인터넷 상에서 누구나 손쉽게 데이터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사용자 참여중심의 인터넷 환경을 지칭함
  - 블로그(Blog), 위키피디아(Wikipedia), 유튜브(YouTube) 등이 대표적
  - 기업은 이를 활용하여 집단지성을 통한 아이디어 도출이나 업무 혁신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맥킨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효과적인 웹2.0의 구현을 위해서는 6가지 핵심요소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남

< 웹2.0 구축을 위한 핵심 요소 >

요 소	내 용
최고 경영진의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웹2.0 프로젝트는 종종 ‘풀뿌리성’ 실험으로 간주되지만 웹2.0기반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위 경영진의 참여가 필수적</li> <li>- 록히드 마틴에서는 초기에 정보책임자(CIO) 직속 고위급 임원이 직접 블로그와 위키를 이용하여 사용자 참여를 유도하였음</li> </ul>
IT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웹2.0의 활용방안을 미리 규정하고 유도하려 했다가는 자칫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li> <li>• 오히려 웹2.0의 활동성향을 신중하게 관찰하여 수시로 적합한 애플리케이션을 찾고 이를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함</li> </ul>
업무 연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웹2.0의 생소함 때문에 관련 과제들이 “추가 업무”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 웹2.0기술은 사용자의 일상적 업무 흐름에 반영될 때 가장 효과적임</li> <li>- 구글은 통상적인 업무 방식을 수정해 직원들의 실제 업무 방식과 관련된 형태로 웹들을 제작하여 좋은 평가를 얻고 있음</li> </ul>
참여자의 자긍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적 인센티브 제도는 웹2.0의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덜 효과적인 반면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용자 욕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li> <li>- 아셀로미탈의 사례에 따르면 직원들은 작은 규모의 비공식 석상보다는 대규모 회의에서 우수 게시물 상을 수여할 때 비즈니스 개선 아이디어를 더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남</li> </ul>
참여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얼리어답터들을 중심으로 해당 톨을 자립적으로 유지해갈 수 있는 사용자를 신중하게 선정해야 함</li> <li>- P&amp;G는 사내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내에서 최신 기술에 정통하며 존경받는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삼았음</li> </ul>
리스크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와 통제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바람직한 웹2.0구축을 위해서는 법무, 인사 및 IT보안 부서의 협력 하에 신중한 리스크 관리가 요구됨</li> <li>- 예를 들어 익명 포스팅을 금지하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포스팅은 ‘심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일시적으로 삭제가 가능하도록 조치</li> </ul>

3) “‘웹2.0 무장’ 위한 6가지 방안”(동아비즈니스리뷰, 2009.4) 참조

□ 왜 일하는가 - 이나모리 카즈오

최근 경영 위기에 몰린 일본항공(JAL)의 재건을 위해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머리를 숙인 장본인은 다름 아닌 현재 일본에서 살아있는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교세라 명예회장 이나모리 카즈오(稻盛和夫, 1932~)이다. 이나모리 명예회장은 현재 일본에서 마쓰시타 코노스케 (1894~1989), 혼다 쇼이치로(1906~1991)와 더불어 일본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CEO이다. 최근 의미심장한 그의 저서가 국내에서 발간되었는데 제목이 ‘왜 일하는가?’이다. 우리는 아침마다 감색이나 검정색 또는 푸른색 수트에 넥타이를 매거나, 또는 작업복 차림으로 똑 같은 길을 거의 똑 같은 방법으로 일하러 간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인데, 그것을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오늘 일보다 개인사로 머리가 복잡하거나, 혹시 일을 생각하더라도 일의 많고 적음과 경중은 따지더라도 오늘 내가 왜 이 일을 해야만 하는지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나모리 명예회장의 경우, 일은 자신의 내면을 단련시키고, 인격을 수양하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 어릴 적부터 결핵과 같은 병치레를 하고, 중학교 입시에는 낙방했을 뿐 아니라 불황 때문에 겨우 취업한 곳이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세라믹 생산 회사였다. 더욱이 그 회사도 불황에 도산 직전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한 배경에는 바로 발상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발상이란 것이 바로 지금의 일을 사랑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겠다는 마음가짐이었다. 즉, 왜 일을 해야 하는지 명확한 자기 신념을 이때에 갖춘 것이라 하겠다. 물론 이러한 마음가짐을 통해 이나모리 명예회장이 지금의 교세라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시켰음은 말할 것도 없는 사실이다.

이나모리 명예회장은 생각의 차이가 인생을 바꾸고, 작은 일에도 감동하고 지금 하는 일을 사랑할 수 있어야만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노력이 가능하게 된다. 또, 일을 사랑해야만 완벽해질 수 있다고 한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하루를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 이틀이 걸린다.”**  
- 탈무드